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경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Leonard Bernstein의 Song Cycle
<I Hate Music>에 대한 연구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성악전공
최 형 은

Leonard Bernstein의 Song Cycle
<I Hate Music>에 대한 연구

박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성악전공

최 형 은

인 준 서

최형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은 레너드 번스타인 (Leonard Bernstein, 1918-1990)의 Song Cycle <I Hate Music>에 관한 분석 연구이다.

번스타인은 20세기에 미국이 낳은 훌륭한 작곡가이자 지휘자이며 피아니스트이다. 또한 교육자, 저술가, 연설가로도 소질을 보였던 다방면에 재능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작곡자 말러(Gustav Mahler, 1860-1911), 힌데미트 (Paul Hindemith, 1895-1963),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1882-1971) 등의 영향을 받았고 그와 더불어 재즈와 라틴 아메리카 음악 등의 성향을 가미시키며 다양한 작곡기법을 선보였다. 그는 학구적인 배경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특성을 잘 조합한 절충 스타일의 작곡가임을 보여준다.

연가곡 <I Hate Music>은 그의 초기작품으로 1943년 자신의 가사에 곡을 붙여 작곡되었으며 번스타인의 대표작은 아니지만 그가 작곡가로서 성공적으로 데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작품이다.

이 연가곡은 음악 속에 재치와 해학이 담겨져 있으며 어린이의 시각에서 바라본 연극적인 요소가 많은 5곡의 어린이 노래(Kid Song)이다. 총 다섯 곡 중에서 한 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표 없이 임시표로만 변화를 주었으나 항상 중심음을 둠으로써 조성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대신에 빠르기와 박자의 변화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단순할 수 있는 선율들을 생동감있게 표현하였다. 또한 번스타인이 추구하였던 극적인 요소들, 재즈, 절충주의적 성격이 작품 속에 잘 반영되어져 있다.

목 차

논문 개요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 1 |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 |
| II. Leonard Bernstein의 생애와 음악 | 3 |
| 1. 번스타인의 생애 | 3 |
| 2. 번스타인 음악의 특징 | 8 |
| III. Song Cycle <I Hate Music> 분석 | 11 |
| 1. 작품개요 | 11 |
| 2. 작품분석 | 13 |
| 1) My name is Barbara (내 이름은 바바라예요) | 13 |
| 2) Jupiter has seven moons (목성은 일곱 개의 달을 가졌어요.) | 19 |
| 3) I hate music (나는 음악이 싫어요) | 28 |
| 4) A big Indian and a little Indian (큰 인디언과 작은 인디언) | 36 |
| 5) I'm a person too (나도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이예요) | 42 |
| IV. 결론 | 50 |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 | |
|---------------------------|----|
| <표 1> 제 1곡의 구성 | 14 |
| <표 2> 제 2곡의 구성 | 20 |
| <표 3> 제 2곡 중 A'의 구성 | 24 |
| <표 4> 제 3곡의 구성 | 29 |
| <표 5> 제 4곡의 구성 | 36 |
| <표 6> 제 5곡의 구성 | 43 |

악보 목차

| | |
|-------------------------------|----|
| <악보 1> 제 1곡의 마디 1 - 9..... | 15 |
| <악보 2> 제 1곡의 마디 10 - 11..... | 16 |
| <악보 3> 제 1곡의 마디 12 - 14..... | 16 |
| <악보 4> 제 1곡의 마디 15 - 16..... | 17 |
| <악보 5> 제 1곡의 마디 17 - 20..... | 17 |
| <악보 6> 제 2곡의 마디 1 - 6..... | 20 |
| <악보 7> 제 2곡의 마디 7 - 16..... | 22 |
| <악보 8> 제 2곡의 마디 17 - 20..... | 22 |
| <악보 9> 제 2곡의 마디 21 - 26..... | 23 |
| <악보 10> 제 2곡의 마디 27 - 41..... | 25 |
| <악보 11> 제 2곡의 마디 42 - 50..... | 27 |
| <악보 12> 제 3곡의 마디 1 - 3..... | 29 |
| <악보 13> 제 3곡의 마디 4..... | 30 |
| <악보 14> 제 3곡의 마디 5 - 9..... | 30 |
| <악보 15> 제 3곡의 마디 10 - 14..... | 31 |
| <악보 16> 제 3곡의 마디 15 - 23..... | 33 |
| <악보 17> 제 3곡의 마디 24 - 28..... | 34 |
| <악보 18> 제 4곡의 마디 1 - 4..... | 37 |
| <악보 19> 제 4곡의 마디 5 - 9..... | 38 |
| <악보 20> 제 4곡의 마디 10 - 21..... | 39 |
| <악보 21> 제 4곡의 마디 22 - 27..... | 41 |

| | |
|-------------------------------|----|
| <악보 22> 제 5곡의 마디 1 - 5..... | 44 |
| <악보 23> 제 5곡의 마디 6 - 9..... | 44 |
| <악보 24> 제 5곡의 마디 10 - 12..... | 45 |
| <악보 25> 제 5곡의 마디 13 - 16..... | 46 |
| <악보 26> 제 5곡의 마디 17 - 22..... | 47 |
| <악보 27> 제 5곡의 마디 23 - 25..... | 47 |
| <악보 28> 제 5곡의 마디 26 - 32..... | 48 |
| <악보 29> 제 5곡의 마디 33 - 39..... | 49 |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 1918-1990)은 20세기 미국의 뛰어난 작곡가임과 동시에 지휘자, 피아니스트, 저술가, 교육자, 연설가 등 다방면에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다. 그는 특히 작곡가로 명성을 떨친 바 있는데 잘 알려진 뮤지컬 <West Side Story>는 그의 대표작이다.

번스타인은 뮤지컬 외에도 오페레타, 발레음악, 극음악, 오페라, 교향곡, 연가곡, 성악곡 등의 수많은 독창적 작품들을 남겼고 다방면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수많은 작품들 중 본 논문에서는 Song Cycle <I Hate Music>을 통해 그의 가곡 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석사 졸업 연주에서 이 곡을 연주 한 바 있는데 연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번스타인의 남다른 음악적 세계를 느낄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많은 매력을 느끼게 해준 이 곡에 대하여 분석 연구하고 싶은 마음에 이번 졸업 논문의 주제를 <I Hate Music>으로 정하게 되었다.

이 작품은 1943년 8월 25일 그의 25세 생일에 초연된 곡으로 이 작품으로 하여금 번스타인은 작곡가로서의 인정받는 첫 무대를 만들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번스타인 음악의 전반적인 특징들을 이해하고 그의 가곡세계를 살펴봄으로써 연주자로 하여금 보다 생명력 있는 연주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의 연구 방법으로 우선 번스타인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면서 작곡가, 지휘자, 피아니스트, 교육자, 연설가로서의 번스타인을 먼저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그의 음악적 특징 및 작품세계를 살펴보고 그의 가곡들 중 특히 Song Cycle <I Hate Music> 을 분석한다.

총 5곡 “My name is Barbara”, “Jupiter has seven moons”, “I hate music”, “A big Indian and a little Indian were walking”, “I’m a person too”로 이루어진 이 곡에서 사용된 가사, 화음, 음정, 악상, 조성, 빠르기, 리듬, 작곡기법, 전체적인 아티큘레이션 등을 연구 하고자 한다.

II. Leonard Bernstein의 생애와 음악

1. 번스타인의 생애

번스타인은 1918년 8월 25일 미국 메사추세츠(Massachusetts)의 로런스(Lawrence)지방에서 유대인 아버지인 사무엘 요셉(Samuel Joseph)과 어머니 제니 레스닉(Jenni Resnick)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보스톤 라틴 학교를 다녔다. 일찍이 음악을 시작하고 싶었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1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 공부를 할 수 있었다. 피아노 레슨을 계속 받던 번스타인은 1935년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여 문학과 철학을 전공하였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헬렌 코츠(Helen Coates)와 하인리히 게하르트(Heinrich Gehard)에게서 피아노를 배웠으며 1939년 졸업하기 전까지 에드워드 힐(Edward Hill)과 킬만(A. Tillman), 베릿(Berritt), 왈터 피스톤(Walter Piston)에게 작곡을 배웠다. 이후에는 커티스 음악원에 입학하여 프리츠 라이너(Fritz Reiner, 1888-1962)에게 지휘법을 배우므로써 26세의 나이에 지휘자의 길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1943년 8월 그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지휘자 로진스키(Artur Rodzinski, 1892-1958)에게서 부지휘자로 임명받아 활약하였다. 그리고 그 해 8월 25일 Song Cycle <I Hate Music>을 제니 투렐(Jenni Tourel, 1910-1973)¹⁾과 함께 초연하였는데 번스타인 자신이 직접 피아노 반주를 하며 성공적인 연주를 거두게 되었다. 같은 해 11월 13일, 그 당시 뉴욕 필의 지휘자였던 왈터(Bruno Walter)의 몸이 쇠하여져서 그를 대신하여 번스타인이 지

1) Jenni Tourel (1910-1973) : 몬트리올 태생의 러시아인 메조 소프라노. 번스타인과 탕글우드에서 첫 리사이틀을 시작으로 계속 절친한 협력자로 지냈음.

휘를 하게 되었다. 갑자기 리허설도 없이 지휘대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공리에 지휘를 마치게 되었고 그것은 그의 음악적 재능을 널리 알리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연주회는 미국 전역 뿐 아니라 해외에도 방송이 되어 그의 천부적인 지휘소질이 국외에까지 선보인 계기가 되었고 뉴욕 타임즈의 제 1면에 실릴 정도로 대 성공적인 것이었다.²⁾

두 달 후 히브리어로 된 예레미아 애가를 소프라노 음성으로 인용한 그의 첫 번째 교향곡 <Jeremiah>가 작곡되었는데 이 작품은 뉴욕 음악 비평가 협회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발레음악 <Fancy Free>를 작곡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1944년 12월 28일 로빈스(Jerome. Robbins, 1918-1998)³⁾, 애벗(G. Abbott)과 함께 뮤지컬 <On the Town>을 만들어 공연하였다. 이 곡은 번스타인의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라틴 아메리카의 리듬과 브로드웨이의 팝 스타일로 작곡되었다.

지휘자로서의 화려한 데뷔 후 다른 오케스트라들의 객원 지휘자로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뉴욕 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으로 임명받았는데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 동안 감독으로 지내던 그 기간에 번스타인은 20세기 작곡가인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1882-1971), 힌데미트(Paul Hindemith, 1895-1963), 쇼스타코비치(Dmitrii Shostakovich, 1906-1975), 바르톡(Bela Bartók, 1881-1945)의 작품들을 지휘하였다. 그때에 그는 그 만의 독특한 지휘스타일을 보이기도 했는데 극적인 팔의 움직임, 온몸을 흔드는 모습, 단에서 펄쩍 뛰기도 하는 열정적이고도 요란한 몸짓들이 바로 그것이었다.⁴⁾

2) Paul Myers, Leonard Bernstein, pp.37-39.

3) Jerome Robbins (1918-1998) : 뉴욕태생의 유명한 안무가. 번스타인의 주요 발레작품인 <Fancy Free>, <Dybbuk>과 브로드웨이 뮤지컬 <On the Town>, <Wonderful Town>, <West Side Story> 등에서 협력자로 일함.

4) Joan Peyser, Leonard Bernstein, The New Grove : Twentieth-Century American Masters (New York : W.W.Norton & Co, 1988), p.291.

1946년 번스타인은 브리튼(Benjamin Britten)의 <Peter Grimes>를 버크샤이어 음악 센터(Berkshire Music Center)에서 지휘하였고 1947년에는 팔레스타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⁵⁾를 처음 지휘하였다. 그는 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2년 동안 세계 순회공연을 하였다.

피아니스트로서의 활동을 계속하던 번스타인은 1949년 쿠세비츠키(Sergei Kussevitzy, 1874-1951)의 지휘아래 자신의 교향곡 No. 2 <The Age of Anxiety>에서 직접 피아니스트로 출연하기도 했다. 이 후 버크샤이어 음악 센터의 교수로 임명되었으며 1951년 쿠세비츠키의 뒤를 이어 수석 지휘자가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브랜다이스 대학의 음악교수로 임명된 그는 칠레 여배우인 펠레시아 콘(Felicia Montealegre Cohn)과 결혼하였다.

1952년에는 영화음악 <On the Water Front>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1953년 마리아 칼라스와 같이 라 스칼라(La Scala)에서 케루비니의 <Medea>가 공연되어지는데 이것이 라 스칼라에서는 미국인으로써의 첫 지휘였다.⁶⁾

그리고 1957년 협력 지휘자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일했고, 그 다음 해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 겸 음악 감독이 되어 1969년까지 재직하였다. 그는 그렇게 재임기간 동안 세계 곳곳으로 순회공연을 하였으며 50년대 초에 CBS에서 하던 젊은이들의 콘서트(Young People's Concert)라는 프로그램에 음악 소개자와 지휘자 등으로 출연하게 되면서 더욱더 유명해졌다.⁷⁾ 이 프로그램은 그 당시에 여러 번 방영되었지만 30년이 지나도 또다시 방송되고 DVD로도 나와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 끊임없이 사랑받았다. 1954년 그는 <The Joy of Music> 이라는 첫 번째 저서를 발표했고 1956년에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5) 팔레스타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이스라엘 오케스트라의 전신.

6) <http://www.library.umass.edu/research/html/grover.html>

7) Richard Jackson, Bernstein, Leonard, The No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 p.630

<Candide>를 발표했다.

그리고 1957년 가을엔 <West Side Story>를 통해 국제적인 극음악 작곡가로 대 성공을 거두어 인정받게 된다.

1960년에는 1944년에 쓴 뮤지컬 <On the Town>을 처음 LP로 녹음하였고, 아돌프 그리(Adolph Gree)와 베티 컴덴(Betty Comden)을 비롯한 수많은 브로드웨이 가수들이 그의 뮤지컬 작품들을 녹음하였다.

그는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는 작곡가보다는 지휘자의 명성을 더 많이 얻었는데 60년대에는 말러(Gustav Mahler, 1860-1911)의 교향곡을 뉴욕 필하모닉과 공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말러 음악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갖게 하기도 하였다.

또한 번스타인은 1966년에 독일의 스타츠오페(Statsoper)에서 <Falstaff>를, 1969년엔 베토벤의 <Missa Solemnis>를, 1970년엔 베토벤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Fidelio>를 지휘했다.⁸⁾

1969년 번스타인은 뉴욕 필하모닉을 사임한 후 유럽의 비엔나에서 활동하게 되며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지휘를 하게 되는데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들어 내게 된다.⁹⁾

1971년 번스타인은 가수와 연주가와 무용을 위한 극장용 작품으로 <Mass>를 작곡하였는데 이는 케네디 센터의 개막식을 위해 작곡된 것이다.¹⁰⁾ 1973에는 하버드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였고 1976년에는 <The Unanswered Question>이란 책을 출판했다. 1978년 긴 병으로 고생하던 번스타인의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 사실상 그는 1971년 <Mass>를 작곡한 이후로 10년동안은 거의 곡을 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아내의 병과 죽음으로 인

8) 앞의 글, Joan Peyser, p.297.

9) <http://www.goclassic.co.kr/artist/bernstein.html>

10) 안희정(1992), Bernstein의 <Mass> 분석연구 : 대중음악이 현대종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

해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라고 추측되기도 한다.

그러나 1980년 오페라 <Trouble in Tahiti> 속편인 <A Quiet Place>를 쓰기 시작했고 이것은 1984년 라 스칼라에서 공연된 첫 미국오페라 라는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¹¹⁾

생전에 번스타인은 수많은 상을 받았다. 1985년 National Academy of Recording Arts and Sciences에서 Grammy상과 11번의 Emmy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명예상으로 1981년 American of Arts and Letters, MacDowell Colony, Beethoven Society , Mahler Gesellschaft, New York City Show 예술분야에서 금메달과 명예상, 극음악에서 뛰어난 업적을 기리는 Tony Award 등의 상들을 휩쓸었다.¹²⁾

세계평화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1985년 원자폭탄 폭발 40주년 기념을 위해 아덴과 히로시마에서 <평화를 위한 여행>이라는 순회공연을 했고, 1989년 크리스마스에는 동독의 샤우스필하우스(Schauspielhaus)에서 베를린 장벽을 허문 기념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베를린 축하 콘서트(Berlin Celebration Concerts)를 지휘하였다. 이 공연은 20개국 이상에 생중계 되었고 그 방송을 본 사람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1990년 8월 19일 탕글우드(Tanglewood)에서 열린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그의 스승 쿠세비츠키를 기리는 연주회를 끝으로 은퇴하였다. 그리고 그 해 10월 14일 72세의 나이로 뉴욕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¹³⁾

11) Peter Gradenwitz, Music and Musicians, pp.143-144

12) 앞의 글, Paul Myers, pp.213-218

13) 앞의 글, Joan Peyser, p.291.

2. 번스타인 음악의 특징

번스타인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청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은 작품들을 작곡하였다. 그는 1942년부터 1987년까지 45년 동안 약 50개의 작품을 작곡하였다. 그 중에는 교향곡, 소규모 오케스트라 작품, 발레 악곡, 오페라, 실내악곡, 연가곡, 독창과 합창을 위한 곡, 뮤지컬, 영화음악 등이 있다.

이렇게 한가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분야에 걸쳐 작곡된 수많은 작품들에 번스타인은 어떠한 음악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였는지 살펴보겠다.

번스타인은 스트라빈스키, 코플란드(Aaron Copland, 1900-1990), 쇼스타코비치,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 말러, 힌데미트, 베르크 등의 작곡가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재즈와 라틴 아메리카 음악의 요소들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다.¹⁴⁾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댄스리듬이 잘 드러난 <West Side Story>는 로빈스에 의해 안무된 뮤지컬로 1957년 8월에 완성되었다. 이는 극적, 무용적, 음악적으로 완전한 뮤지컬로 영화로도 개봉되었고 미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단한 성공을 이룬 작품이다. 또한 그는 종종 12음 기법도 사용하였는데 그러나 이러한 기법은 항상 조성적 맥락 안에서만 나타났다. 즉, 번스타인은 결코 조성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았다.

번스타인이 사용하였던 리듬은 충격적이었다. 당김음이나 교차리듬은 물론, 느린 템포와 빠른 템포를 섞어가면서 비대칭적인 박자라고 느껴질 리듬들을 많이 사용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정적인 선율을 첨가시켜 교묘히 균형을 맞추었다. 이 때문에 그의 음악이 생소하고 특이하면서도 대중적으로 들리는 것이다.

선율은 짙막한 모티브를 중심으로 만들어 지는 경우가 많았다. 때로는 특

14) 앞의 글, Richard Jackson, p.630

정 음정을 기준으로 작곡한 곡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완전 5도를 중심으로 작곡된 <Wonderful Town>, 단 7도가 기본 음정이 되는 <Candide>, 그리고 유명한 <West Side Story>역시 증 4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¹⁵⁾ 또한 7도나 9도의 도약 진행도 많이 사용하였다. 이 논문의 주제인 연가곡 <I Hate Music> 에서도 이러한 도약진행을 사용하였다.

번스타인은 또한 연쇄적 선율 기법¹⁶⁾을 발전시켰다. 교향곡 <The Age of Anxiety>가 이러한 기법을 사용한 첫 작품이다. 영화음악 <On the Water Front>에서도 이런 연쇄적 선율 기법을 사용하면서 서정적인 사랑의 주제로 바뀌어 간다.

번스타인의 작품들을 보면 성악부를 첨가시키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종교적인 것과 유대인적인 요소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적인 요소도 함께 곁들여져 있다. 그러한 곡들의 주제로는 주로 종교적인 것, 현대사회의 공허함이나 불안정성, 외로움, 좌절감 등을 비판하고 이에 반항하는 것들이다. 또한 번스타인은 기쁨과 불행, 선과 악, 사랑과 파괴, 삶에 대한 갈망과 역경과도 같은 것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러한 관심은 그의 작곡한 곡들에서 잘 표현되어졌다.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불협화음과 낭만적인 협화된 소리를 연합하기도 했고, 변화된 복합적인 리듬과 일정한 리듬을 연합하였다. 또한 온음계와 반음계적 선율이 서로 교류하여 음악에 잘 반영되어졌다.

번스타인은 지휘하는 스타일도 그 당시 다른 지휘자들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전통을 계승해 오는 유럽 지휘자들과는 다르게 그는 어떤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았다. 오직 음악적인 표출에만 신경을 썼다. 또한 무대에서 연주되

15) 구수경(1999), Leonard Bernstein의 가곡 세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p.17-21

16) 연쇄 선율 기법 : 음악적 아이디어가 꼬리를 물고 발전하여 전혀 새로운 것으로 변모하도록 하는 음악 기법.

는 음악들도 제한하지 않았다. 지성인들이 공감하는 것이라면 서슴없이 무대에 올려서 현대인들이 원하는 음악을 들려주었다.

그는 대중적인 극장과 연주홀 모두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작곡가였다. 그 이유는 그가 절충주의음악¹⁷⁾의 작곡가였기 때문이다.

번스타인의 음악적인 특징을 요약해 보자면 먼저 그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작곡하였다. 교향곡에서 영화음악에 이르기까지 그는 대중적인 음악과 예술음악 분야에 있어서 두 분야 모두 뛰어난 소질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음악 양식을 혼합한 절충주의적 작곡가였다. 중심음을 두기도 하였으며 조성의 맥락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작곡한 곡들의 주제는 종교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으나 때로는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주제들도 있다.

17) 절충주의 음악 :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음악양식에서 장점을 뽑아 체계를 만든 사조를 뜻함.

Ⅲ. Song Cycle <I Hate Music> 분석

1. 작품 개요

번스타인의 <I Hate Music>은 “A Cycle of Five Kid Songs for Soprano and Piano” 라는 부제를 가진 곡으로 자신의 가사에 의해 작곡 되었다. 1943년 8월 25일 메사츄세츠 주의 레녹스의 국립도서관에서 열린 메조 소프라노 제니 투렐과 번스타인 자신의 피아노 반주에 의해 앙콜 곡으로 초연되었다.

같은 해 11월 13일 뉴욕의 타운 홀(Town Hall)에서 앙콜곡이 아닌 정규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인 공식 데뷔 무대를 가졌다. 대체로 종교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는 번스타인의 다른 성악작품들과는 달리 활발하고 가벼운 풍의 이 곡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아니지만 그가 작곡가로써 성공적으로 데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작품이다.¹⁸⁾ 순수함과 기발함이 묻어나는 가사들과 거기에 어울리는 독창적인 음악의 요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게 하였다.

이 연가곡의 제목은 번스타인과 같은 아파트에서 살던 에디스 메릴(Edys Merrill)이라는 여성 예술가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번스타인과 그의 음악 친구들이 그녀의 주위에서 연주하거나 즉흥곡을 짓고 있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귀를 손으로 막으면서 “난 음악이 싫어!” 하고 소리쳤다고 한다. 번스타인은 이 연가곡을 그녀에게 헌정하였다.

번스타인은 이 곡을 발표하기 전에 자신의 스승이었던 쿠세비츠키에게 이 곡을 보여주었지만 그는 번스타인이 지휘에만 전념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18) 앞의 글, Paul Myers, p.35.

곡을 싫어했다. 하지만 뉴욕의 음악 비평가들은 이 연가곡에 너무나도 좋은 평가를 내렸다.¹⁹⁾

번스타인이 쓴 많은 작품에는 연극적인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작품도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번스타인은 악보 첫 머리에 “이 노래를 연주할 때에는 수줍음을 피해야 하고 어린이를 표현하는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귀여움은 결코 꾸며져서는 성공적일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연주자의 기품과 세련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음악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이 노래의 연극적인 특성을 강조했다. 이 곡을 연주할 때는 언어적인 특색을 살리고 강세에 유의하면서 말하듯이 불러야 한다. 가사는 10살짜리 소녀가 이야기하는 형식의 밝고 풍자적인 것으로 번스타인이 가졌던 사회에 대한 비판적 철학이 담겨져 있다. 특히 곡 전체에 걸쳐 어린 여자아이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시어들이 표시되어져 있으므로 이것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My name is Barbara”, “Jupiter has seven moons”, “I hate music”, “The big Indian and a little Indian were walking”, “I’m a person too” 의 총 5곡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연가곡은 불규칙한 마디의 결합과 잦은 변박, 불확실한 조성, 7도나 9도의 도약 진행, 그리고 반주의 음형이 계속되는 특징들을 보인다.

19) Johanna Hurwitz, Leonard Bernstein, p.42.

2. 작품 분석

1) My name is Barbara (내 이름은 바바라예요)

My mother says that babies come
in bottles;
but last week she said their grew
on special babybushes.
I don't believe in the storks,
either !
They're all in the zoo, busy with
their own babies !
And what's a babybush, anyway ?!
My name is Barbara

엄마가 말씀하시길, 아기들은 병에서
태어난대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아기들이 특별한
아기수풀에서 자란다고 하셨어요.
난 이제 아기를 날라다 준다는 황새
얘기는 믿지 않아요.
황새들은 동물원에서 자기 새끼들을
돌보느라 바쁘겠조 !
어쨌든 아기수풀이 뭐냐구요 ?!
내 이름은 바바라예요

첫 번째 곡은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는지에 대하여 궁금함을 갖는 어린 소녀의 마음이 잘 나타나져 있다.

Moderato의 빠르기로 된 이 곡은 통절형식이며 전체 마디가 20마디밖에 되 짧은 곡이다. 2/2 박자가 주를 이루면서 마디 9와 마디 12에서만 3/4박자로의 변박이 나타난다. 이 곡은 조표를 사용하지 않고 임시표가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확실히 드러나는 조성을 찾기란 어렵다.

성악 성부 첫 시작 음은 e_5 로 시작하고 끝나는 음은 e_4 로 끝난다.²⁰⁾ 처음 마디 1 - 5의 반주 아랫 성부도 e 음을 페달 포인트로 하였고 곡의 중간에는 e 로 끝나는 부분이 자주 등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곡이 E 장조, 혹은 e 단조라고 단정 짓기에는 모호함이 많다.

이 곡의 구성을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 현대 국제 음향 및 성악 교수법에서의 용법에 있어서, 음정 명칭은 미국 표준연맹에 의해 보증된 미국 음향학회의 시스템으로 표시되었다. 음표 c에서 시작되는 건반의 각 옥타브에는 숫자가 매겨져 있다. 예를들면 중간 c(가온 다)는 네 번째 옥타브의 시작으로 c_4 라고 표기한다.

<표 1> My name is Barbara의 구성

| | |
|----------|--|
| 구성 | 조성이 분명치 않으나 E 음이 중심음으로의 역할을 함. |
| 박자 | 2/2 → 3/4 → 2/2 → 3/4 → 2/2 |
| 템포 | Moderato (나타냄말이 템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반주와 화성구조 | 7th, 9th의 넓은 음역의 화성적 울림을 갖음. 조성의 기능이 아닌 소리 색깔로의 화성이 특징 |
| 곡의 특징 | 10살짜리 여자아이의 의심을 품은 생각과, 반항적인 말투가 나타나지만 자기자신의 소개는 '달콤하게' 표현하는 독특함이 나타남. |
| 연주시간 | 약 55초 |

전주 반주부에서의 e₄ 에서 f#₅으로 가는 장 9도의 진행은 공허하고 신비로 우면서도 절제된 느낌을 주는데 이러한 e₄ 에서 f#₅으로의 9도 상행진행은 번스타인의 작품에서 많이 나타난다. 왼손 반주의 낮은 성부는 a₂ 에서 시작하여 6마디에서는 e₂ 까지 A→G→F#→E로 순차 하행 진행하는 테트라코드²¹⁾ (Tetrachord)를 사용했다. 그리고 다시 e₂ 에서 a₂ 를 거쳐 D로 7도 상행진행을 하는데 마디 7의 성악성부에서도 마찬가지로 a₄ 에서 g₅까지 7도로 상행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디 9에서 E 장조의 느낌으로 끝난다.

성악성부가 도입되는 부분을 보면 *명상에 잠기듯이*(*mp, very legato, contemplative*) 라고 지시된 대로 생각에 잠긴 듯 음과 음 사이를 잘 연결하여 불러야 한다.

처음 'My mother says that babies come in bottles (엄마가 말씀하시길 아기들은 병에서 태어난대요)' 라고 말하는 부분은 아기가 태어난다는 병을 묘

21) 서양 음악에서, 연속되는 네 음으로 이루어지며, 그 네 음 가운데 높은음과 낮은음 사이가 완전 4도를 이루는 음계

사해주듯이 피아노 성부도 윗소리를 부드럽게 레가토 시켜야 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연출되도록 연주해야 한다.

<악보 1> 마디 1 - 9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ystems. The first system (measures 1-3) features a voice line with the lyrics "My mother says that"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piano part includes a 9th fret marking and a *p* dynamic marking. The second system (measures 4-6) continues the lyrics "babies come in bottles; but last week she said they" and includes a *simile al segno* marking. The third system (measures 7-9) concludes the lyrics "grew on special baby-bushes." The piano accompaniment throughout is characterized by a soft, legato texture with a prominent upper voice line.

마디 10의 'I don't believe in the storks either (난 이제 아기를 날라다 준다는 황새 얘기는 믿지 않아요)' 부분에서의 성악성부는 지시어 *격렬하게* (*vehemently*)라는 말과 함께 *f*와 액센트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어린아이의 확

고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야 한다. 여기에 셋잇단 음표의 사용은 이를 더욱 강조해 주고 있다. 반주도 이전의 음형을 버리고 16분 음표의 앞 짧은 꾸밈음과 더불어 강건하게 지속시킴으로써 확고한 의지 표현을 나타낸다.

<악보 2> 마디 10 - 11 (악보 1참조)

마디 12 - 14에서는 앞의 마디 6 - 8의 선율이 약간만 변화하여 반복되고 있다.

<악보 3> 마디 12 - 14

마디 15와 마디 16의 성악성부는 *f*로 거의 분개한 듯이, 거의 화난 듯이 (*almost resentfully*)의 노래해야 한다. 가사 'what's'와 'ba-by-bush'의 음절에서는 테누토를 사용하고 'an-y-way!?'의 첫 음에 액센트를 사용함으로 아기수풀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고 강하게 전한다. 반주 부분은 처음의 리듬형으로 되돌아옴을 볼 수 있는데 성악성부를 보조하여 *mf*로 약간만 강하게 연주해야 한다.

<악보 4> 마디 15 -16

15 *resentfully*
 what's a ba - by - bush, an - y - way!?

Pno. *mf*

마디 17은 *dim. poco a poco rit.*로 점차 작아지고 느려지다가 마디 18에서 *p*로 마지막 종결 부분이 시작된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운 듯이 작고 달콤하게, 점점 느려지면서(*p, sweetly slowing up*) 소개하고 *pp*로 끝낸다. 이 때에 성악 성부와 반주부 모두 마지막 음은 E로 끝나는데 피아노의 중간 성부는 마디 17에서부터 *b→a*의 진행을 세 번 반복한 후 20마디에서 *g#*으로 끝맺음으로써 더욱더 E 장조의 느낌이 나도록 이끌어 준다.

<악보 5> 17 -20마디

17 *p*
 My name is Bar - ba - ra

Pno. *dim. poco a poco rit.* *pp*

이 곡은 아이의 감정표현을 자연스럽게 나타내야 하므로 동요를 부르는 것처럼 깨끗한 목소리로 불러야 하며 가사를 정확히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악상 p 와 f 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므로 악상에 맞게 구분을 지어야 한다.

2) Jupiter has seven moons (목성은 7개의 달을 가졌어요)

Jupiter has seven moons
or is it nine ?
Saturn has a million, billion, trillion
sixty-nine;
And ev'eryone is a little sun, with six
little moons of its own !
But we have only one !
Just think of all the fun we'd have if
there were nine !
Then we could be just nine times
more romantic !
Dogs would bay'til they were frantic !
We'd have nine tides in the Atlantic !
The man in the moon would be gigantic !
But we have only one !
Only one !

목성은 7개의 달을 가졌어요.
아니, 9개던가 ?
토성은 달을 백만 개, 십억 개, 1조하고도 69
개나 가졌다는데
그리고 모든 행성들이 각기 6개의 작은 달을
가진 작은 해래요 !
그러나 우리는 한 개 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에게 9개의 달이 있다면 얼마나
신날지 생각해 보세요 !
그렇다면 우리는 9배나 더 낭만적일 거예요 !
개들은 너무 좋아서 날뛰며 짖을 거구요 !
우린 대서양에서 9번의 조수를 얻을 수 있죠
달 속에 사람은 더욱 커지겠죠 !
그러나 우리에게겐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
오직 하나밖에 !

이 곡 역시 아이의 순진함이 잘 묻어나오는 곡으로 우주에 대한 아이의 기
발한 생각들이 잘 표현되어져 있다.

이 곡에서는 알레그로 비바체(Allegro vivace)와 몰토 메노 모소(Molto
meno mosso)로 빠르기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대비되는 빠르기는 경쾌
한 분위기와 슬픈 분위기의 감정변화를 잘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빠르기는
이 곡의 형식인 ‘전주 - A - B - A’ - B’ - 후주’ 를 만들어 내는데 밀접한
연관을 준다. 5/8박자와 4/8박자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변박되어 반주 음형은
스타카토 위주의 음형과 레가토 위주의 음형 두 종류가 이 곡 전체에 걸쳐 반
복 된다. 이 곡 역시 첫 번째 곡과 마찬가지로 조표는 없지만 임시표를 자주
사용하여 변화를 주고 있다. 그러나 조성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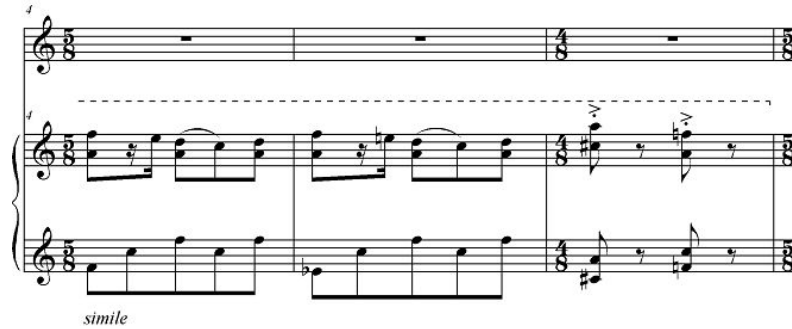
이 곡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Jupiter has seven moons의 구성

| 형식 | 전주 | A | B | A' | B' | 후주 |
|----|--------------------------------------|----------------|------------------|----------------|------------------|----------------|
| 마디 | 1 - 6 | 7 - 20 | 21 - 28 | 29 - 41 | 42 - 47 | 48 - 50 |
| 템포 | Allegro vivace | Allegro vivace | Molto meno mosso | Allegro vivace | Molto meno mosso | Allegro vivace |
| 박자 | 5/8 → 4/8 → 5/8 → 4/8 → 5/8 → 4/8 …… | | | | | |

전주부분에서의 화성은 F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5/8박자 두 마디와 4/8박자 한마디의 세 마디가 기준이 되어 같은 형태로 반복된다. 마디 1 - 3에 사용된 이러한 짧은 스타카토의 음형은 A부분에까지 계속 나타난다. 이 때 5/8박자 부분에서는 2+3의 혼합 박자이므로 첫 박자와 세 번째 박자를 구분해서 리드미컬하게 연주하되 너무 지나친 액센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높은 음역에서 시작되는 전주부분은 *p*로 가볍게(*leggero*) 연주하고 액센트와 스타카토에 유의하면서 연주 한다. 또한 마디 4에 표기된 *simile* 라는 지시어에 따라 액센트와 스타카토를 일관되게 지켜서 연주해야 한다.

<악보 6> 마디 1 - 6



A부분 이 시작되는 마디 7 부터 성악 선율은 반주와 동일하게 붓점과 액센트를 사용하여 가볍고 *밝게(lightly)* 표현하고, ‘Jupiter has seven moons (목성은 7개의 달을 가졌어요)’ 라는 가사에 맞추어 신나서 얘기하는 듯한 어감을 잘 살려주어야 한다. 마디 12 - 14에서는 ‘million, billion, trillion’의 가사를 E, D 음으로 반복 처리 하였는데 이것은 세 단어의 운율이 일치하기 때문에 음도 똑같은 E-D의 음형을 세 번 반복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백만, 십억, 1조라는 많음의 의미를 같은 음을 세 번 반복함으로써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잘 처리했다고 볼 수 있다. 번스타인의 재치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마디 11에서 노래는 3+2, 반주는 2+3으로 엇갈리는 혼합박자가 나타나고 마디 14에서는 F 중심으로 진행되던 화성이 E 장조 화성의 느낌으로 전환된다. 이 후 반주부는 마디 14 - 16까지 오른손으로는 E 장조를 하행 음계로, 왼손으로는 E 장조 화성을 분산화음으로 연주한다. 이것은 토성이 달을 백만개, 십억개, 1조하고도 69개나 가졌다는 것을 상상하며 즐거워하는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발랄하고 즐겁게 연주해야 한다. (<악보 7> 참조)

<악보 7> 마디 7 - 16

7 *mp* *lightly*
 Ju - pi-ter has sev-en moons or is it nine? Sa - turn has a
 8
 12
 million, billion, trillion sixty - nine; And
 12
mp *p*

마디 17에서 마디 20까지의 성악 성부는 E 장조 음계를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상행진행함으로써 곡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악보 8> 마디 17 - 20

17
 ev - ry one is a lit-tle sun, with six lit-tle moons of its own!
 17
mp *p*

마디 21 부터는 B부분으로 Molto meno mosso로 빠르기가 변한다. 앞에서 행성들이 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즐겁고 신나게 노래했던 것과는 다르게 'but we have only one (우리에게는 달이 하나밖에 없어요)' 라는 내용으로 어린 아이의 실망스런 감정을 슬프게(*sadly*) 표현해야 한다. 앞의 스타카토 중심의 음형과는 대조되는 레가토 위주의 음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박자는 모두 4/8박자로 되어 있다. 마디 21 - 23 는 우리에게 달이 하나밖에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어린아이의 감정을 성악 성부와 피아노 성부가 유니즌(*unison*)으로 일치된 감정을 느끼면서 부드럽게 레가토로 연주한다.

<악보 9> 마디 21 - 26

21 Molto meno mosso *mf* *sadly*
 But we have on - ly one! Just

21 *mf* *p* *mp*

24 *poco rit.*
 think of all the fun we'd have if there were

마디 27부터 A'부분이 시작된다. 마디 26에서 조금 느려졌던 부분은 다시 빨라지면서 자연스럽게 Tempo I 으로 돌아가 Allegro vivace로 바뀐다. 그러면서 피아노 성부는 다시금 A 부분과 같이 밝고 경쾌한 음형을 연주한다. 성악 선율은 마디 29에서 F 장조의 음들을 중심으로 *진지하게(seriously)* *p*로 시작하다가, 마디 33에서는 A 장조 중심의 선율과 *mf*로 흥분을 고조시키며 (*with growing excitement*) 연주한다. 달이 많으면 'Dogs would bay 'til they were frantic! We'd have nine tides in the Atlantic! (개들은 너무 좋아서 날뛰며 짖을 것이고, 우리는 대서양에서 조수를 9번이나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설레고 흥분되는 감정을 잘 표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마디 36에서는 a 단조 중심의 선율과 *크레센도(cresc.)*로 진행하고 마디 39에서는 Db 장조 중심의 선율과 *f*를 써서 마디 41에 클라이막스에 도달한다.

A' 부분의 구성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 Jupiter has seven moons 중 A' 의 구성

| 마디 | 27 - 32 | 33 - 35 | 36 - 38 | 39 - 41 |
|-------------|-------------------------------|--|---------------|--------------------------------|
| 중심 선율 | F 장조 | A 장조 | a 단조 | Db 장조 |
| 지시어와 셈여림 | <i>seriously,</i> <i>P</i> | <i>with growing excitement,</i> <i>mf</i> | <i>cresc.</i> | <i>cresc.</i> <i>f → ff</i> |

마디 39 - 41의 'The man in the moon would be gigantic (달 속의 사람은 더욱 커지겠죠)' 부분에서 'gigantic(크다)'을 진짜 자신이 커진 듯 *ff*와 테누토로 강조하여 연주하며 흥분의 절정임이 잘 표현되어지도록 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율을 맞춘 가사들의 음정은 점차로 상승하여 (romantic → frantic → Atlantic → gigantic) 마디 42에서 피아노 성부의 *ff*

코드로 이어져 발전적 전개의 도달점이 된다. 아주 커다란 사람을 묘사하는 듯한 이 코드는 5 옥타브로 이루어진 넓은 음역의 화성층과 곡의 절정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코드 이므로 거대한 느낌으로 풍부하게 울리는 소리를 연출해 내야 한다.

<악보 10> 마디 27 - 41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ystems, each with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key signature has one flat (B-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3/8. The first system (measures 27-29) features a vocal line starting with a long note on 'nine!' followed by a rest and then 'Then'. The piano accompaniment is marked *pp sempre staccato*. The second system (measures 30-32) has the vocal line singing 'we could be just nine times more roman-tic!'. The piano accompaniment continues with a steady eighth-note pattern. The third system (measures 33-35) has the vocal line singing 'Dogs would buy til they were fran-tic!'. The piano accompaniment is marked *mf* and *crese.* (crescendo).

42마디부터는 B' 부분으로, 빠르기는 다시 Tempo II로 돌아와 Molto meno mosso가 된다. 마디 42에서 피아노 성부의 강한 E 음을 이어받은 성악 성부의 D 음은 *ff*와 더 강한 표현력(*espr.*)이 요구되어 진다. D음부터 테누토를 사용하여 한음 한음 또박또박 하행하면서 'but we have only one (우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를 노래한다. 앞서서 같은 가사를 노래했던 마디 21 - 23에서는 오른손 아랫 성부와 성악 성부만 유니즌이었지만 마디 42 - 44에서는 왼손, 오른손, 성악성부 이렇게 세 파트가 모두 한 음으로 연주함으로써 더욱더 풍부한 감정을 표현한다.

마디 44 - 47의 반주부는 B 부분의 마디 23 - 26의 'Just think of all the fun we'd have (우리에게 달이 많다면 얼마나 신날지 생각해 보세요)' 부분의 성악 선율을 그대로 모방하였다. 하지만 마디 42 - 44에서는 마디 23 - 26에서 상상할 때 신이 났었던 것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버린 실망감을 슬프게(*lamentando*) 연주한다.

마디 46의 'Only'가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mp*의 작은 음량으로 노래 하다가 점차적으로 *크레센도* 해주고 'one'음절에 이르러 가장 강한 악상이 오도록 *f*로 연주한다. 그리고 마디 48 이후부터는 점점 작아져서 마디 50에서는 *pp*로 끝난다. 이 때 마지막 부분이라고 해서 반주부 보다 더 음을 오래 끌지 않도록 하고 반주의 *pp*가 나오는 부분에 맞추어 같이 간결히 마무리 한다.

<악보 11> 마디 42 - 50

42 **Tempo II** *ff*

But we have on - ly one!

ff *mf* *espressivo* *lamentando*

45 *mp*

On - - - ly

48 **Tempo I**

one!

dim. *pp*

3) I hate music (나는 음악이 싫어요)

| | |
|---|---------------------------|
| I hate music ! | 난 음악이 싫어요! |
| But I like to sing: | 그러나 노래부르는 것은 좋아하는답니다. |
| la dee da da dee; la dee da dee | 라디다다디; 라디다디. |
| But that's not what I call music |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음악이라고 부르는것이 아 |
| No, sir | 니예요 |
| Music is a lot of men in a lot of tails | 그렇죠 선생님. |
| making lots of noise like a lot of females | 음악은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모여서 여자들 |
| Music is a lot of folkies in a big dark hall, | 처럼 시끄럽게 떠드는 거구요. |
| where they really don't want to be at all; | 음악은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어두운 홀에서 실 |
| with a lot of chairs, and a lot of airs, | 은 전혀 원하지도 않으면서 그런체 하는거구요. |
| and a lot of furs and diamonds ! | 많은 의자들과 숨소리, |
| Music is silly ! | 수많은 모피들과 다이아몬드들 ! |
| I hate music ! | 음악은 어리석어요 ! |
| But I like to sing: | 난 음악이 싫어요 ! |
| la dee da da dee; | 그러나 노래부르는 것은 좋아하는답니다. |
| la dee da dee; la dee da dee | 라디다다디; |
| | 라디다디 라디다디... |

이 곡은 연가곡의 제목과 동일한 제목을 갖고 있으며 총 5곡으로 구성된 연가곡의 정중앙에 위치한 핵심적인 노래이다. 풍자적인 성격이 많이 엿보이며 즐거워서 노래부르는 듯한 마지막 부분은 어른들을 질책하는 듯 하다.

이 곡의 빠르기는 Sostenuato, Allegro molto로 구성되어 있으며 템포 변화와 더불어 가사, 반주형태 등에 의해 형식은 A - B - A'으로 볼 수 있다. A 부분은 Sostenuato, B 부분은 Allegro molto, A' 부분은 다시 Sostenuato로 돌아온다. 박자는 4/4박자와 2/4박자가 엇갈려서 나온다.

이 곡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4> I hate music의 구성

| 빠르기 | Sostenuto | Allegro molto | Sostenuto |
|-----|-----------------------------------|---------------|-----------|
| 형식 | A | B | A' |
| 마디 | 1 - 9 | 10 - 23 | 24 - 28 |
| 박자 | 4/4 → 2/4 → 4/4 → 2/4 → 4/4 → 2/4 | | |

전주가 없는 이 곡은 마디 1의 성악 성부에서 ‘I hate music(나는 음악이 싫어요)’ 라는 부정적이고 강한 어조의 가사를 강조하기 위해 번스타인의 다른 곡에서도 자주 사용되던 9도 상행 도약 음정(E → F#)으로 시작한다. 그와 동시에 테누토와 액센트, *f*로 강하게 표현하여 싫다는 것을 강조한다.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hate’ 부분에서 F#M⁹ 코드를 강하게 연주함으로써 가사를 강조해 줘야 한다. 그러나 마디 2 - 3 에서는 ‘but I like to sing (그러나 노래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라는 가사처럼 *p*로 갑자기 긴장을 풀어서(*suddenly relaxed*)로 노래 한다. 피아노도 가사 ‘like’를 받쳐주는 코드를 연주할 때는 앞의 ‘hate’와는 상반된 느낌으로 부드럽고 편안한 소리를 내도록 한다. “to sing”에서도 d₄ → e₅ 의 9도 상승이 나타나지만 처음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좋아하는 것을 노래하므로 액센트 없이 부드럽게 연주하여 대비를 이룬다.

<악보 12> 마디 1 - 3

마디 4는 12음 음악의 패러디 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mp*로 무반주로 부른다. 어린 아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처럼 묘사된 이 부분은 좋아하는 노래를 가볍게 부르는 듯 자유롭게, 다소 단조로우면서 무심코 (*freely, rather tonelessly and carelessly*) 불러야 한다. 음정 간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르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악보 13> 마디 4

마디 5부터는 In Tempo로 잠깐 2/4 박자로 연주되던 것이 다시 4/4로 돌아온다. 성악 성부는 마디 6의 e - f# - a - d 의 음정을 마디 7에서 반복하고, 마디 9의 'No, sir (그렇죠 선생님)' 은 마디 8의 e₅ → d₅의 음정을 한 옥타브 아래로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테누토를 사용하여 강조된다.

<악보 14> 마디 5 - 9

마디 10에서 마디 23까지는 자신이 싫어하고 있는 음악이 어떤것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형식상 B 부분에 해당한다. Allegro molto로 빠르기가 변화함으로써 A 부분과의 상당한 대조를 보인다.

마디 10 - 14는 'Music is a lot of men in a lot of tails, making lots of noise like a lot of females (음악은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모여서 여자들처럼 시끄럽게 떠드는 거구요)'라고 설명을 시작하는데 이 때 'Music(음악은)'에서 액센트와 *f*로 강조하며 주의를 집중시킨다. 성악 성부의 음정은 비교적 저음역들을 중심으로 되풀이 하다가 'men, tails, noise, females' 에서는 각각 b_4 , c_4 , b_4 , d_5 음으로 상승함으로써 단어들을 부각시켜 준다. 반면에 피아노 성부는 3연음부로 된 아르페지오를 지속시키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듯한 소리를 묘사하는 효과를 준다.

<악보 15> 마디 10 - 14

12 *cresc.*
lot of tails, mak - ing lots of noise like a

14
lot of fe - males;

*mp*로 시작되었던 B 부분은 *크레센도*로 점점 고조되어 15 마디에서 *화가 난 듯이(angrily)*로 또다시 *액센트*를 사용하여 강조하여 부른다. 앞의 마디 10 - 14를 이어받아 음악이 싫은 까닭을 설명하다 보니 감정이 고조되어서 실제로 화가 난 것처럼 부르는 것이다.

가사 'lot of'를 노래하는 음들은 같은 형태들로 반복되지만 'folks, hall, don't, all, chairs, airs, furs, diamonds'와 같은 단어들은 음정을 b_4 , c_4 , b_4 , d_5 로 정확하게 내어 강조하면서 점차 상승 분위기를 나타낸다. 이 때 성악성부의 음역이 비교적 낮은 편이고 피아노성부 또한 낮은 음역에서 연주되기 때문에 피아노는 성악성부를 침해하지 않도록 연주하되 공연장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웅성거리는 것처럼 연주해야 한다.

마디 15부터 점진적으로 *크레센도*하며 상승 분위기로 연주되던 것은 마디 23의 g_5 음인 'diamonds'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며 *ff*와 *액센트*로 감정을 한껏 고조시킨다. 마디 22 - 23까지의 피아노는 페달을 떼지 않고 계속 연결하며

음악을 함께 고조시키다가 성악 성부의 음이 끝날 때 함께 끊음으로 음악의 극적인 묘미를 살린다.

<악보 16> 마디 15 - 23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ystems, each with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key signature has one sharp (F#) and the time signature is 7/8.

- System 1 (Measures 15-17):** The vocal line begins with the lyrics "Mu - sic is a".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triplet of eighth notes in the right hand and a triplet of eighth notes in the left hand. Performance markings include *angrily* and *mp*.
- System 2 (Measures 18-19):** The vocal line continues with "real - ly don't want to be at all: with a". The piano accompaniment continues with the triplet pattern. Measure 18 is marked with a fermata.
- System 3 (Measures 20-23):** The vocal line continues with "lot of chairs, and a lot of airs, and a lot of furs and dia - monds!". The piano accompaniment continues with the triplet pattern. Performance markings include *piu cresc.*, *ff*, and *sfz*. Measure 22 is marked with a fermata.

마디 24 부터는 A' 부분으로 다시 Tempo I 으로 돌아가는데 B부분의 내용들을 'Music is silly ! (음악은 어리석어요!)' 라는 한마디의 말로 요약하고 흥분을 가라앉힌다. 성악 성부가 3연음부와 액센트로 강조하며 이 부분을 단호히 연주할 때 피아노 역시 *sfz*로 연주하여 성악 성부의 느낌을 도와준다.

마디 25부터는 A 부분이 똑같이 반복 되어 지는데 마디 28의 흥얼 거리는 부분은 처음에는 너무 느리지 않게(*not too slowly*) 연주하다가 남들에게 과시하는 것처럼 갑자기 드러내서(*subito, showing off*) 부른다. 이 때 $f\#_5$ 음에 늘임표가 있으므로 충분히 음을 끌어주다가 마지막 부분은 점차 느려지며(*rit.*) 마치 혼잣말을 하듯이 흥얼거리면서 끝낸다.

<악보 17> 마디 24 - 28

4) A big Indian and a little Indian (큰 인디언과 작은 인디언)

A big Indian and a little Indian were walking down the street.
The little Indian was the son of the big Indian;
but the big Indian was not the father of the little Indian;
You see the riddle is, if the little Indian was the son of the big Indian, but the big Indian was not the father of the little Indian.
Who was he ?
I'll give you two measures:
His mother !

큰 인디언과 작은 인디언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작은 인디언은 큰 인디언의 아들이래요
그렇지만, 큰 인디언은 작은 인디언의 아빠가 아니래요.
여기 수수께끼가 있어요. 작은 인디언이 큰 인디언의 아들인데, 큰 인디언은 작은 인디언의 아빠가 아니래요.
그는 누구일까요 ?
두 마디 후에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그의 엄마예요 !

이 곡은 어린아이가 수수께끼를 내는 아주 재미있고 독특한 곡으로 수수께끼 노래(Riddle Song)로 불리워진다. 다른 곡들도 연극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만 특히 이 네 번째 곡은, 곡 중간에 노래가 아닌 말로써 가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연극적인 요소가 더욱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다.

통절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노래는 Con brio(생기있게)로 연주하여야 하고 악보에 자주 등장하는 액센트를 아주 정확하게 지켜서 노래해야 한다. 박자는 3+4의 혼합박자로 이루어진 7/8박자를 중심으로 잦은 변화를 주고 있다. 이 곡 역시 일정한 조성 없이 임시표로 변화를 주었다.

이 곡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5> A big Indian and a little Indian 의 구성

| | |
|-----|---|
| 빠르기 | Con brio (생기있게) |
| 형식 | 통절형식 |
| 박자 | 7/8 → 8/8 → 7/8 → 9/8 → 5/8 → 7/8 → 5/8 → 7/8 → 8/8 |

마치 인디언이 춤을 추고 있는 듯한 모습을 그린 전주부분은 액센트를 정확하게 지키며 연주하여야 한다. 마디 1 - 2 는 ‘큰 인디언’이 걷는 모습을 *mf* 로 연주하고 마디 3 - 4 에서는 비슷한 음형을 ‘작은 인디언’이 걷는 모습인 *mp*로 연주해야 한다. 이러한 대비되는 악상을 통해 크고 작은 인디언의 모습이 뚜렷이 구별 되도록 한다.

<악보 18> 마디 1 - 4

The musical score is titled 'Con brio' and covers measures 1 through 6. The first system (measures 1-4) is in 7/8 time. Measures 1 and 2 are marked *mf* and feature a melody with accents on the first and third beats. Measures 3 and 4 are marked *mp* and feature a similar melody. The second system (measures 5-6) is in 8/8 time. Measure 5 is a whole rest for the treble clef. Measure 6 features a melody in the treble clef and a bass line in the bass clef.

액센트는 주로 첫박자와 네 번째, 여섯 번째 박자에 붙어있는데, 성악 성부가 시작되는 마디 5에서 처럼 *p*로 연주할 쯤이라도 그러나, 매우 정확하게 강세를 지켜서 (*but, very sharp accents*) 불러야 한다. 3+4의 혼합박자를 중심으로 된 7/8박자는 마디 7에서만 성악성부가 4+3으로 반주와 엇갈린다. 이렇게 반주부의 오른손이 3+4로 연주되는 동안 반주부의 왼손은 마디의 구분과 상관없이 C → D → E 를 계속 되풀이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리듬의 진행은 전

주와 후주를 뺀 곡 전체에서 거의 전체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것은 재즈적인 요소가 많이 사용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오른손과 왼손이 각기 독립적으로 움직임으로써 마치 각기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성악성부가 시작되는 부분은 ‘A big Indian and a little Indian were walking down the street (큰 인디언과 작은 인디언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라는 가사처럼 인디언이 길을 걷는 듯 당당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가 수수께끼를 내는 것처럼 신나고 천진난만하게 노래한다.

<악보 19> 마디 5 - 9

p (*But very sharp accents*)

A big In - di - an and a

p *eguale*

lit - tle In - di - an were walk - ing down the street.

마디 10에서 성악성부는 앞의 마디 5에서 시작했던 g_4 음보다 3도 높은 음정인 b_4 로 시작한다. 수수께끼의 설명이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급진적으로 나아가면서(*carried forward by the impetus*) 연주하고 점차 곡의 분위기는 고

조된다.

마디 10 - 18 까지 성악 성부는 'little, son, big, father'과 같은 몇몇 단어들을 e₅, f#₅, g₅, a₅ 로 순차적으로 상승 진행시키며 감정이 고조됨을 표현한다. 반주부의 오른손도 성악 성부와 마찬가지로 마디 13의 첫 박인 d#₅와 e₅, 마디 14의 f#₅, 마디 15의 g#₅, 마디 16의 첫 박인 a₅ 로 상승 진행된다. 이러한 성악성부와 반주부 선율의 진행은 결국 마디 16에서 같은 음인 a₅를 연주하게 된다. 음의 세기도 p에서 시작하여 크레센도 되어 마디 16에서 ff로 커지면서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형성한다. (<악보 20> 참조)

그리고 마디 18의 반주부는 인디언 같이 무거운게(*pesante, like Indians*)라는 지시어에 맞추어 연주하여야 한다.

<악보 20> 마디 10 - 21

The musical score is presented in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10 to 12, and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13 to 15. The vocal line is in treble clef, and the piano accompaniment is in grand staff (treble and bass clefs). The key signature has one sharp (F#), and the time signature is 3/8. The score includes dynamic markings: *mf* (mezzo-forte) for the piano accompaniment in measure 10, *mp* (mezzo-piano) in measure 11, and *p* (piano) in measure 12. The vocal line starts with *mf* and is marked 'carried forward by the impetus'.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rhythmic pattern of eighth notes in the bass and chords in the treble. The lyrics are: 'The lit - tle In - di - an was the son of the big In - di - an; but the big In - di -'. The score concludes with a *cresc.* (crescendo) marking in measure 15.

15 *ff*
an was not the fa - - ther of the lit - tle

15 *f*

18
In - di - an: -

18 *f pesante, like Indians*

마디 22는 어린아이가 수수께끼를 내는 부분이다. 이 때 반주부는 E 음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속시켜 주어야 하므로 풍부한 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연주해야 한다. 수수께끼를 내는 부분은 아주 빨리 말하며 (*spoken very fast*) 표현한다. 하지만 정확한 발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밑줄 친 가사에는 특히 강세를 더 두으로써 어린아이의 즐거운 마음과 천진스런 말투가 잘 드러나도록 표현해야 한다. 또한 이 부분은 번스타인이 추구하였던 연극적인 요소가 아주 잘 드러나는 부분이므로 성악가는 연극적인 재스처나 생기있는 표정으로 연주한다.

‘두 마디 후에 가르쳐 드릴게요.(I’ll give you two measures)’ 라고 이야기 한 후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는 두마디, 즉 마디 23 - 24 에서는 전주부분에서 사용되었던 반주가 나온다. 마디 25 - 26은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한 상대방에게 승리를 거둔 듯이(*triumphantly*) 테누토와 액센트를 지키며 ‘그의 엄마

예요! (his mother!)’ 를 노래한다.

수수께끼의 답이 나오는 마디 25에서는 피아노 성부가 *크레센도* 하며 곡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다가 ‘엄마! (mother!)’ 라고 말하는 마디 26에서 *f*로 코드를 짧게 연주해 준다. 이 때 코드의 가장 윗 음인 E 음은 성악 성부와 같은 음인 것을 알 수 있다. E 음을 짧게 끊지 않고 길게 지속시켜 줌으로써 성악 성부를 강조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성악 성부보다 지나치게 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디 27에서 사용된 마지막 코드는 C 장조의 코드로 *mf* 연주되고 장난스럽고 천진난만한 이 곡의 분위기가 끝까지 잘 이어지도록 해준다.

<악보 21> 마디 22 - 27

22 (*spoken very fast*)
 You see the riddle is, the little Indian
 was the son of the big Indian, but the big
 Indian was not the father of the little Indian,
 (7) who was he? _ I'll give you two measures:

24 *f triumphantly*
 His moth - - er!

f *mf*

5) I'm a person too (나도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이에요)

I just found out today, that I'm a person too, like you
I like balloons ;
lots of people like balloons;
But ev'ryone says, "Isn't she cute? She likes balloons !"
I'm a person too, like you !
I like things that ev'ryone likes;
I like soft things and movies and horses and warm things and red things;
don't you ?
I have lots of thoughts; like what's behind the sky;
and what's behind what's behind the sky;
But ev'ryone says, "Isn't she sweet? She wants to know ev'rything!"
Don't you ?
Of course I'm very young to be saying all these things in front of so many people like you;
but I'm only ten years old;
I'm a person too, like you !

오늘에서야 나도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이란 걸 발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풍선을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풍선을 좋아해요
그렇지만 모두들 “저 여자 애 귀엽지 않아? 쟤 풍선을 좋아한대 !” 하고 말하죠.
나도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이에요 !
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요
난 부드러운 것과 영화와 말들과 따뜻한 것 빨간 것들을 좋아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
난 ‘하늘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와 같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늘 뒤에 또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지
하지만, 모두들 “저 여자 애 예쁘지 않아? 쟤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해!”하고 말하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
물론 나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든 말들을 하기엔 아주 어려워
비록 나는 열 살 밖에 안 됐지만,
나도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이에요 !

이 곡은 연가곡의 5곡중에서 유일하게 조표가 붙은 곡으로, 아직 어리지만 자신도 역시 한 사람이라는 주장을 펼쳐나가는 소녀의 명랑한 모습이 잘 담겨져 있다.

빠르기는 Moderato와 Andante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이러한 템포 변화에 맞추어 A - B - A' - B' - A'' - B'' - A''' - C의 형식을 갖는다. 박자는 4/4박자가 주를 이루지만 가끔 3/4박자와 5/4박자가 나온다. 그리고 마치 찬송가를 연상 시키는 것 같은 4성부 코랄풍의 피아노 반주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 곡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6> I'm a person too의 구성

| 형식 | A | B | A' | B' | A'' | B'' | A''' | C |
|-----|-------------------------------|---------|---------------|---------|---------------|---------|---------------|---------------|
| 빠르기 | Mod- rato | Andante | Mode- rato | Andante | Mode- rato | Andante | Mode- rato | Meno Mosso |
| 마디 | 1 - 5 | 6 - 9 | 10-12 | 13-16 | 17-22 | 23-25 | 26-32 | 33-39 |
| 박자 | 4/4 → 3/4 → 4/4 → 3/4 ... 5/4 | | | | | | | |

전주 없이 시작되는 A 부분은 마디 1 - 5 까지이고 Moderato의 빠르기이다. 마디 1 - 5 에서의 4분음표 음형진행은 행진곡처럼 (alla marcia) 당당하게 연주할 수 있는 느낌을 잘 전해준다. A 부분의 박자는 4/4박자와 3/4박자가 번갈아 나오는데 *f*와 진지하게 (*earnestly*) 'I just found out today, that I'm a person too, like you (오늘에서야 나도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이란걸 발견했어요)' 를 부른다. 특히 마디 4 - 5의 'like you'는 테누토를 잘 지켜서 연주함으로써 여러분들과 같다는 뜻을 단정적으로 (*assertively*) 노래한다.

반주부를 살펴보면 윗 성부와 아랫성부가 반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윗 성부에서는 상행진행하면서 성악성부의 멜로디와 같은 음을 연주하는 반면 아랫 성부는 하행으로 순차 진행하면서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나타내준다. A 부분에서는 4분음표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F 장조의 조성을 갖는다.

<악보 22> 마디 1 - 5

Moderato, alla marcia
f earnestly *assertively*

I just found out to - day that I'm a person too, like you:

mf

마디 6 - 9 은 B 부분으로 Andante로 빠르기가 변하여 앞의 A 부분과는 상반된 분위기가 된다. *p*로 순종하듯이 (*resigned*) 시작되는데 셋잇단음표를 잘 지켜 불러야 한다. 중심을 이루는 조성도 F 장조에서 Eb 장조로 변하며 피아노 성부도 A부분과는 다르게 레가토로 이어서 연주한다. 성악성부의 음정 변화에 맞추어서 마치 성악성부를 따라하듯이 작고 부드럽게 움직여줘야 한다.

<악보 23> 마디 6 - 9

cresc.

But ev - ry - one says, "Is - n't she cute? she likes bal - loons!"

마디 10부터는 A'로 마디 3 - 5에서 사용된 음정을 3도 높여서 그대로 모방하고있다. Tempo I 으로 돌아가 빠르기는 다시 Moderato로 변한다. A'부분에서 순종하듯이 조심스레 부르던 것을 이제는 주장을 되찾은 듯이 (*recovering assertiveness*) *mf*로 'I'm a person too, like you (나도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이에요)' 라고 자신있게 노래한다. 반주부도 성악성부의 멜로디를 옥타브로 연주함으로써 주장을 뒷받침 하도록 한다. 가사 'like you'도 처음부분과 마찬가지로 테누토로 강조해주면서 충분히 음미하며 부른다. A'의 조성은 A 장조 이다.

<악보 24> 마디 10 - 12

Tempo I (*recovering assertiveness*)

mf

10 I'm a per - son too, like you!

mf

마디 13 - 16은 B'부분이 시작되는데 조성은 B부분의 A 장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B부분보다 4도 올라간 음으로 시작하며 음형도 약간 변형 되었다. 빠르기는 다시 Tempo II로 돌아간다. 또한 Andante로 *단순하게, 설명하는 방식 (simply, by way of explanation)*'으로 노래해야 한다. *mp*로 시작하지만 가사에서 구체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나열하게 되면서 감정이 점차 고조된다. 그리고 마디 15 -16의 'Don't you? (그렇지 않니?)' 를 *호소하듯이 (appealingly)* 테누토하여 부른다. 이 때 마디 16에서의 피아노 성부는 성악성부의 음을 옥타브 위의 음으로 연주함으로써 마치 성악 성부의 메아리처럼 한

번 더 강조하여 표현해준다.

<악보 25> 마디 13 - 16

마디 17부터는 또 다시 A 부분과 같은 음형, 같은 빠르기가 나타나면서 A''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앞의 A 부분과는 다르게 반주부가 움직이지 않고 페달 포인트로 지속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반주가 Eb 장조 느낌으로 머물러 있는 동안 성악 성부는 똑바로 앞에 나아가듯이 (straightforward) 연주한다. 하늘의 뒤에 또 그 뒤에, 또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하는 가사처럼 연극적인 요소를 넣어 표현해준다.

mp로 시작하여 마디 18 - 19에서 크레센도 되고 마디 22에서는 f에 이르는데 특히 마디 21 - 22의 마지막 구절을 노래할 때는 정말로 궁금증이 최고조에 달한듯이 더욱 표현력 있게 (espr.) 연주한다. 이 부분의 조성은 Ab 장조이다.

<악보 26> 마디 17 - 22

Tempo I
mp straightforward
 17 I have lots of thoughts, like what's be - hind the
 20 sky; and what's be - hind what's be - hind the sky: But
p *cresc.* *mf* *f* *p*

마디 23부터는 B'부분으로 다시 Tempo II, Andante로 돌아간다. B부분과 같은 음형이지만 앞에 비해서 약간 축소되어져 나타나고 조성은 A b 장조로 지속된다. 마디 24의 'ev'rything'은 액센트로, 'don't you?'는 *f*와 테누토로 강조하여 부른다.

<악보 27> 마디 23 - 25

Tempo II
 23 ev-ry-one says, "Is-n't she sweet? She wants to Know ev-ry-thing!" Don't you? Of
mf *f* *p*

마디 26부터는 A''' 부분으로 다시 Tempo I 으로 돌아가며 빠르기도 Moderato로 되돌아간다. 자신이 어리다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 갑자기 약간 불확실한듯이 (*suddenly a little bit unsure*) *p*로 노래한다. 그러다가 마디 28에서 점점 커지고 마디 30에서는 차차 확신을 되찾게 (*gradually recovering assertiveness*) 된다. A'''는 A부분이나 A'부분에서 반주부가 4분음표로 진행되던 것과는 다르게 반주의 하성부가 붓점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이러한 옥타브 진행이 세 차례 동형진행 되면서 느낌은 더욱 확장된다.

A''' 부분의 조성은 G 장조 이다.

<악보 28> 마디 26 - 32

Tempo I

26 *suddenly a little bit unsure* *cresc.*

course I'm ver - y young to be say - ing all these

26 *cresc.*

29 *gradually recovering assertiveness* *f*

things in front of so man - y peo - ple like you; but

29 *mf*

마디 33부터 끝까지는 빠르기가 Meno mosso로 변화하는 새로운 형식 C가

등장한다. 앞에서는 성악성부가 상행진행이 많았던 반면에 이 부분에서는 a₅ 부터 f₄ 까지 F장조의 코드 느낌으로 넓게 하행 진행되는 음형이 세 번 반복된다. 피아노 성부의 오른손도 성악성부의 멜로디와 같은 음형을 연주해주며 하행 진행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악성부와 피아노 성부 모두 테누토를 사용하여 'I'm a person too ! Though I'm only ten years old (비록 나는 열 살밖에 안됐지만, 나도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이에요 !)'라고 확신에 차서 노래한다. 또한 표시된 지시어처럼 위엄을 가지고 (*with dignity*) *f*로 불러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강조되고 확신에 차더라도 각 음 들이 하나의 프레이즈로 연결되도록 노래한다. 같은 음형을 세 번 반복 하는 만큼 그만큼 강조와 확신의 의지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반복이 거듭되는 만큼 더욱 당당하고 위엄있는 톤으로 표현해준다. 곡이 끝나는 마지막 마디 38 - 39 의 'like you'는 한층 더 의미 심정한 어조로 *크레센도* 하며 마무리 한다.

곡의 마지막인 C 부분의 조성은 처음 이 곡을 시작할 때 처럼 F 장조로 마무리 된다.

<악보 29> 마디 33 - 39

Musical score for measures 33-39. The score is in F major and 3/4 time. It features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vocal line starts at measure 33 with the lyrics "I'm a person too! Though I'm only ten years old, I'm a person too, like you!". The piano accompaniment includes markings like "Meno mosso", "with dignity", and "f". The score is in F major and 3/4 time.

IV. 결 론

레너드 번스타인의 <I Hate Music>은 그가 뉴욕 필하모닉의 지휘자로 데뷔하였던 1943년에 작곡된 곡이다. 그 해 8월 25일 자신의 피아노 반주와 제니 투렐의 연주로 초연되었다. 이 곡은 그의 초기곡이지만 번스타인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청중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게 해준 곡이다. 또한 그의 음악 인생에도 중요한 토대가 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곡의 가사 역시 번스타인이 직접 썼다. 내용은 동화적이면서도 그 안에 철학적인 생각, 사회에 대한 번스타인의 비판적이고도 풍자적인 사상 등이 많았다.

소프라노를 위한 5개의 어린이 노래인 이 연가곡은 번스타인이 추구하였던 절충적인 성격이 잘 반영된 작품으로, 한 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표 없이 임시표로만 변화를 준 뚜렷한 조성이 없는 작품이다. 그는 가끔 12음 기법이나 현대적인 작곡기법을 사용함으로써 20세기의 흐름에 발맞추었지만 조성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항상 중심음을 둬으로써 조성의 틀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이다. 대신에 빈번하게 박자와 빠르기의 변화를 사용함으로써 단순할 수 있는 선율들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때론 폭이 넓은 도약적 선율을 사용함으로써 곡에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던 번스타인이었기에 피아노 성부에도 성악성부 못지않게 중요성을 부여했다. 피아노가 노래 가사의 느낌을 잘 전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는 피아노 반주부를 거의 두가지 정도의 한정된 음형들을 사용하여 곡의 분위기를 일관된 분위기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였다.

다음은 이 연가곡을 이루는 5곡의 특징들과 연주기법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

다.

첫 번째 곡인 “My name is Barbara”는 아기가 아기수풀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더 이상은 믿지 않겠다는 어린아이의 반항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묘사하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로 레가토를 잘 살려 부드럽게 연주 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곡 “Jupiter has seven moons”는 첫 번째 곡보다 훨씬 경쾌한 곡이다. 목성과 토성 등의 다른 행성들은 모두 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어린아이의 심정이 잘 나타나있다. 또한 우리에게도 달이 아홉 개라면 얼마나 신날지 상상해 보라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마음을 혼합박자, 액센트, 스타카토로 아주 신나고 재미있게 표현해준다.

성악가는 정말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신나는 상상도 하며 즐겁게 노래도 해보고 때로는 현실을 알게 된 어린이의 안타까운 심정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곡 “I hate music”은 연가곡의 제목과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곡으로 연가곡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다. 음악에 대한 비판적인 철학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노래이기도 하다. 가사 ‘I hate music but I like to sing (나는 음악은 싫지만 노래하는 것은 좋아해요)’ 으로 시작하는데 사실은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교양 있게 보이기 위해 음악회에 오는 어른들의 행동을 질책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해서 부르는 노래는 음악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진짜 음악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하게 해 준다. A - B - A’로 형식 구분이 뚜렷하고 특히 B 부분은 감정을 고조시켜 격정적이고 극적으로 불러야한다.

네 번째 곡 “A big Indian and a little Indian were walking”은 수수께끼

송으로 불리워지며 인디언에 관한 수수께끼 문제를 자신 있고 쾌활하게 내는 곡이다. 혼합박자인 7/8박자가 주를 이루고 특히 액센트를 잘 지켜서 노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곡의 중간에 등장하는 음정 없이 말로써 노래하는 부분에서는 연극적인 요소가 잘 드러나도록 생기 있는 얼굴 표정과 제스처를 함께 사용하여 연주한다.

다섯 번째 곡 “I’m a person too”는 ‘나도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이에요’라고 주장하는 어린 소녀의 귀엽고도 맹랑한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다. 5곡 중에서 유일하게 조표가 붙은 곡이지만 잦은 전조를 보인다. A와 B 부분이 비슷한 음형으로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 C 부분에서는 다른 음형을 사용하였다.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어린아이의 의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끝나는 부분인 가장 마지막 마디는 크레센도 되며 마무리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크레센도는 어린아이가 당당하고 확실한 주장을 펼치는 의도로 쓰여진 것이기도 하지만 이 곡이 연가곡의 가장 끝 곡이기도 하므로 마지막을 알리듯이 끝까지 당차게 마무리 하며 불러야 한다.

<I Hate Music>은 번스타인의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작곡가로서 성공적으로 데뷔할 수 있게 해준 작품이다. 이 곡을 통해 번스타인이 추구했던 음악적인 요소들을 잘 알 수 있었다. 그가 자주 사용하였던 7도, 9도의 상승 진행, 빈번한 임시표의 사용과 변박, 액센트와 같은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유머러스하면서도 비판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있으며 번스타인의 절충주의적인 성격이 잘 반영 되어져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갖는 번스타인의 작품 <I Hate Music>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훌륭한 작품이다.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세광 출판사 사전 편찬 위원회 (1982). 「음악 대사전」. 서울 : 세광출판사.
- 삼호출판사 편집국 (1989). 「음악 용어 사전」. 서울 : 삼호출판사.
- 이찬해 (1975). 「현대 음악(하권)」. 서울 : 수문당.
-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1997). 「두길 서양 음악사」. 서울 : 나남출판사.
- 박미애 (2000). 「영·미 가곡과 아리아」. 서울 : 선민음악.

2. 논문

- 구수경 (1999). Leonard Bernstein의 Song Cycle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안희정 (1992). 번스타인(L. Bernstein)의 <Mass> 분석연구 : 대중음악이 현대음악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3. 외국 서적

- Burton, William Westbrook (1995). *Conversations About Bernstei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Gradenwitz, Peter (1987). *Leonard Bernstein. The Infinte Variety of a Musician*. New York : Berg Publishers.
- Hurwitz, Johanna (1993). *Leonard Bernstein, A Passion for Music*. JPS :
Philadelphia and Jerusalem
- Jackson, Richard (1980). s. v. *Bernstein, Leonard, The No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 ed. by Stanley Sadie, vol. 1. London :
Macmillan.

- Myers, Paul (1998). *Leonard Bernstein*. London : Phaidon Press Limited.
- Peysner, Joan (1988). *Leonard Bernstein. The New Grove Twentieth-Century American Masters*.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4. 인터넷 사이트

- <http://www.leonardbernstein.com>
- <http://www.library.umass.edu/research/html/grover.html>
- <http://www.goclassic.co.kr/artist/bernstein.html>

ABSTRACT

An Analytical study of the Song Cycle <I Hate Music>
by Leonard Bernstein.

Choi, Hyung Eun
Department of Music (Voice Majo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an analytical study of the song cycle <I Hate Music> by Leonard Bernstein(1918-1990).

Bernstein was a prominent American composer, conductor and pianist and also a talented educator, writer and speaker. He was influenced by Gustav Mahler(1860-1911), Paul Hindemith(1895-1963) and Igor Stravinsky(1882-1971) and used various compositional techniques including those from jazz and Latin American music. He was an eclectic composer who compounded classical and popular music without departing from his scholarly background.

The song cycle <I Hate Music> is one of Bernstein's early works which was set to his own lyrics in 1943. This composition is not one of Bernstein's masterpieces, but because of this, Bernstein was able to make a successful debut.

This song cycle is a Kid Song Composed of Five songs. The songs have many dramatic elements showing children's point of view and contains wit and humor. All songs except one are written without key signature, using only accidentals to indicate chromatic changes. However, Bernstein always places a central note and thus does not escape the boundary of tonal music. Instead, he frequently shifts tempo and meter to provide lively expression to the melodies which could otherwise be merely simple. Dramatic elements, jazz, and eclectic nature that Bernstein sought are well reflected in his works.